

2022-2023 S/S COLOR TREND

- 베리페리 Very Peri



올해의 컬러는 바로 **베리 페리 (Very Peri)** 블루컬러의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보라색과 빨간색이 조합된 느낌이다.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세계가 부상함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한다.



올해의 팬톤 컬러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밝고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패션에 적용한다면 역동적이면서 자유로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좋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색감이므로 반짝이는 소재를 사용하면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붉은 계열의 열정적인 느낌과 파란 계열이 불변성이 결합되어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패키징을 통해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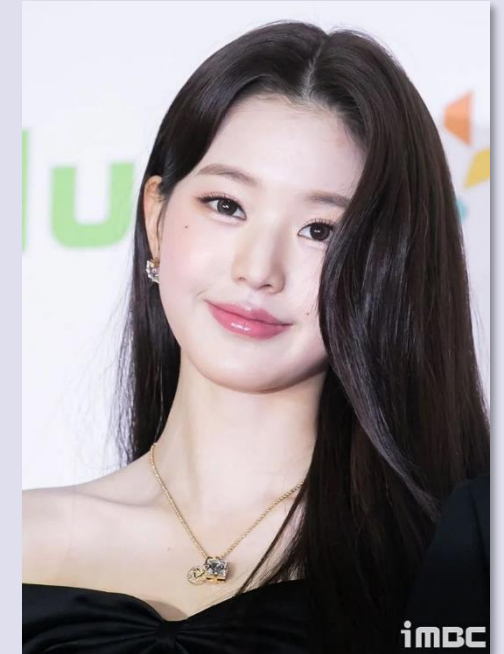
2022-2023 S/S SEASON MAKE-UP

- 애교살 메이크업



2022년 MZ세대 메이크업 트렌드는 '애교살 메이크업'이다. Z세대가 애교살 메이크업 시도 경험은 79.2%로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마스크로 눈을 제외한 얼굴 전부를 가리게 되면서 아이 메이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애교살을 돋보이게 하는 새도우, 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이너 형태로 출시하면서 다양한 메이크업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글로시 립 메이크업



2022년 립 메이크업 트렌드는 '글로시 립'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립 제품을 선호해 왔다. 해외의 탈코로나 선언을 지켜보며 다시 입술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2022년 립글로스의 부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2022 S/S 런웨이 쇼에서는 많은 모델들이 입술이 반짝였다. 누드 컬러부터 깊은 주홍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상에 광택을 더해 반짝임을 표현했다. Y2K 트렌드 유행과 탈코로나 선언에 대한 기대로 2022년에는 반짝이는 립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3 S/S SEASON FASHION

- 화려한 네온과 순백의 화이트



올봄에는 화려한 네온 컬러와 순백의 화이트 컬러가 유행할 전망이다. 지속되는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디자이너들이 런웨이에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다. 브랜드마다 쿠티르 룩을 방불케 하는 드레스부터 재킷, 스커트, 팬츠 등에 화려한 색으로 활력을 더했다.

샤넬과 디올은 다양한 디자인의 옷에 흰색과 형광 팔레트를 골고루 사용했으며, 에르메스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룩을 네온 컬러로 물들이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정적인 화이트와 생동감 넘치는 네온 컬러 룩이 공존하는 지금은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색의 향연은 그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2022-2023 S/S SEASON FASHION

● 메탈 스트랩



디자이너들이 앞다퉀 가방에 **메탈 스트랩**을 달았다. 로고를 체인으로 제작한 지방시를 필두로 **브랜드 이니셜과 나비 펜던트**를 매달아 Y2K 무드를 뽐낸 블루마린, 포츠 1961, 발렌티노 등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섬세한 디테일로 디자인을 살렸다.

● 플랫폼 슈즈



지난 시즌부터 **플랫폼 슈즈**의 인기가 뜨거웠다. **올봄 디자이너**들은 투박하고 독특한 형태를 띠는 아이템을 대거 선보였다. 레이스업, 클로그, 메리제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대담한 굵에 올려 저마다 브랜드의 개성을 살린 것이다. 올봄은 시선을 끄는 '통굽'이 유행할 것이다.

2022-2023 S/S SEASON HAIR

- 풀뱅 헤어 스타일



강한나, 신민아와 같은 배우들이 **풀뱅스타일**을 활용해 동안외모를 완성하였다. 앞머리를 무겁게 내리는 헤어스타일이라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앞머리가 너무 무거운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민아와 같은 시스루 풀뱅으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추천한다.

- 강렬한 헤어 컬러



ITZY의 예지, 블랙핑크의 제니와 같은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붉은 빛의 레드 오렌지와 상큼한 오렌지 컬러** 등으로 염색해 고혹적인 무드를 뽐내고 있다. 펜데믹시대를 이겨내자는 의미와 함께 강렬한 컬러와 자신만의 돋보이는 헤어스타일을 이용해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2022-2023 S/S SEASON N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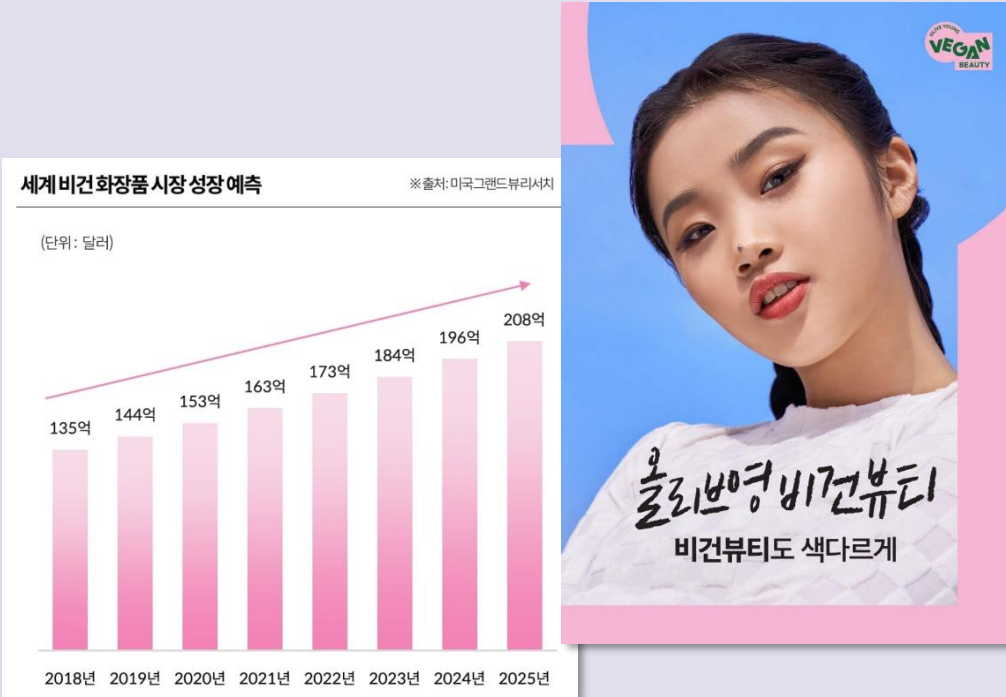
2022 S/S 컬렉션 모델들의 백스테이지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네일 컬러는 바로 누드! 토리버치는 베이지 컬러 네일을 선택했고 프라발구롱의 모델들은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를 발라 심플하게 연출했다. 디올은 손톱을 잘 정돈한 뒤 투명한 컬러의 네일 래커를 바른 것이 특징이다. 브러쉬라운지 최지숙 실장은 “이번 시즌에는 미니멀한 네일이 트렌드”라고 말하며 “올해는 손톱을 짧게 자른 뒤 무심하게 반쪽만 바르는 등 누디한 컬러로 심플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봄을 알리는 컬러는 단연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이다. 네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 시즌 모스키노 컬렉션에서는 화이트 컬러가 섞인 밝은 파스텔 핑크 네일을 선택해 로맨틱하게 연출했다. 베르사체 쇼의 모델들은 스퀘어 모양 긴 손톱에 톤 다운된 파스텔 핑크 컬러를 물들인 것이 특징이다. 손 피부가 노란 경우 오렌지 계열을 피하고, 붉은 피부를 지녔다면 딸기우유 컬러는 지양하고, 태닝 피부엔 형광빛 파스텔컬러가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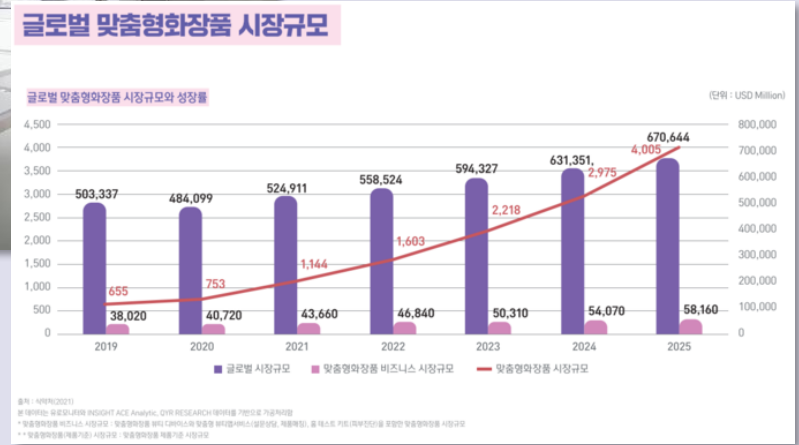
2022-2023 S/S COSMETIC TREND

● VEGAN BEAUTY



2022년 화장품 업계의 주요 키워드는 [비건 뷰티] 비건 화장품은 제조·가공 단계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요즘 MZ세대의 트렌드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건 화장품이 내세웠던 신념과 가치관의 실천을 넘어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이 20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 PERSONAL BEAUTY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에 맞춰 매장에서 즉석으로 재료를 혼합하거나 소분해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개인마다 고유의 색인 '퍼스널 컬러'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맞춤형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맞춤형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2월 28일 개인별 맞춤 화장품 브랜드 '커스텀미'를 출시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들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뛰어들면서 점차 맞춤형화장품 시장규모는 커질것으로 예측된다.